

##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

세계사에서 민족 대이동이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훈족에 쫓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로마 제국을 침입하여 고대 서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고 유럽의 중세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 전의 단지파 민족의 대이동은 알타이 산맥에 이르러 2백여 년간 우거하면서 주나라를 일으켜 중국 고대왕조 은나라(상나라)의 멸망을 가져왔고, 계속 동진하여 몽골 초원에서 유목민으로 생활하면서 훗날 발흥한 훈족의 모태가 되었고 또한 징기스 칸을 배출하였다. 중국 서북부로 진출한 단지파의 잔류 세력에 의해서 주나라가 건국되던 때(지도 그림 참조)와 똑같은 시기에 한반도에 도착한 단지파의 주류 세력은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그런 단지파 민족의 대이동은 언제,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민족 뿌리의 실체를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사료된다.

###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짝을 이루는 역사를 하기에 분별할 수 있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의 3절 가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하나님은 찬송을 찬송하네”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찬송가도 영적인 말씀인 것으로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 온다는 말은 생수가 연결된다는 말이다. 광야에 화초가 핀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니까 꽃처럼 아름다운 화초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들이 살고 있는 세상(시온)에 생수가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생수가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근원이 되어서 흐른다는 찬송가도 있다. 어린 양은 구세주를 말한다. 구세주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세계 만국에 다 통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린다’는 말은, 산은 의인을 말함이고 이의인



의 말씀과 저 의인의 말씀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은 영적 동정녀가 영모님이요 바로 저 산이 되는 ‘저 의인’이다. ‘이 산’은 만국을 다스리는 구세주로서의 ‘이 의인’이다. 따라서 소사 광야에 시온성이 되는 승리제단에 계신 ‘이 의인’의 이긴자 말씀과 저 아래 부산 기장 신앙촌에 계신 ‘저 의인’의 영모님 말씀이 똑같이 일치되어 나오는 역사를 가리켜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린다’고 했던 것이다.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린다’는 표현으로 짝이 맞는 역사를 한다고 했으며, 성경 상에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높은 층에 올랐던 이사야 선지자는 “짝이 맞는 말이 라야 여호와 말씀(사34:16)”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짝이 맞지 않는 말은 마귀 말이요 마귀 역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민족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짝을 맞추어보면 윤곽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예컨대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날이며 건국일이다. 같은 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짝이 맞는 역사도 한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라진 단지파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고 기쁨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삼손이 죽자 단지파의 대이동

한민족은 지금으로부터 3천 2백여 년전에 이스라엘 나라 소라 땅에서 이주해 온 도래인이다.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경에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던 단지파의 장수 삼손이 적군의 미인계에 사로잡혀 죽게 되자, 삼손 장수를 잃은 단지파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여 승부를 보지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앞날이 캄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지파 백성들에게 해 돋는 동쪽을 향해서 떠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한 다(고전2:11)고 했듯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이긴자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단지파가 기점으로 분배받은 땅에는 가장 강력한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단지파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과 약 2백여 년간 전쟁을 치렀지만, 승부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소라 땅으로부터 동쪽으로 이주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3천 2~3백년 전이었다.(2001. 7. 8. 말씀)”라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던 때가 기원전 1406년이며 그 후 5년이 지나서 기원전 1400년에 요단 서편 땅을 분배했는데 그때 단지파도 블레셋이 거하는 땅을 기점으로 분배받았다. 그리고 단지파 백성들은 기점으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민족과 100년 내지 200여 년간 전쟁을 치렀으나 승부를 보지 못하고 소라 땅에서 동쪽으로 이주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난 시기가 기원전 1300년 내

지 1200년 사이로 떨어진다.

그런데 성경 사사기에 초대 사사 오티엘을 시작으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도라, 아일, 임다, 임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등 사사의 활약을 연대기 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오직 ‘삼손’만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士師)임에 불구하고 12번째에 배치하여 사사기 13장 1절에서 16장 31절까지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에 임명된 것은, 사사 삼갈이 어느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없고 단지 블레셋과 싸웠다는 점과 그의 활약 시기가 기원전 1200년 중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삼손의 이름을 대신하는 가명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삼손이 열두 번째 사사(士師)라면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동시대에 활약했다가 되는데, 두 명의 사사가 겹치는 일이 발생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삼손과 사무엘 간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삼손은 열두 번째 사사가 아님이 증명된다.

그럼 왜 삼손이 세 번째 사사인데 열두 번째 사사인 것처럼 성경 사사기에 기록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무엇인가? 이는 장차 삼손이 속한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며 또한 단지파 가운데서 만민들을 구원하는 삼손과 같은 무적장수 구세주가 등장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일례를 성경 창세기 49장에 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야곱이 열두 아들의 장래 일을 예언할 때 다섯 번째 아들 단을 특별히 일곱 번째 순서에 두었다. 이것은 ‘단’의 후손에서 성경 묵시록의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을 떼는 자요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부는 백보좌 심판자요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주인공이 출현한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또한 7수는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체된 수이므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천지개벽에 의한 회복된 지상낙원(에덴동산)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 하단에서 계속

## 금주의 말씀 요절

###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79>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의 성품이 100% 없어지자 정말로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것을 봐도 좋아지지 않고 나쁜 것을 봐도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남이야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참견하는 음란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형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견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참견하는 음란죄다.

그리고 인간의 습성이 과거를 자주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려면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다음에는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시기에 이해가 안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순종을 했던 것이다.\*

### 이기는 삶

##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 하는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전문가란 특정 분야,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그래서 경험보다 나은 스승은 없다고 한다.

특정 분야에서 실수와 잘못이 충분히 쌓이면 언젠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더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고 더 열심히 실수하라. 실수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점점 실수가 줄어들고 다. 그리하여 더 이상 실수할 게 없어진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다.

자동차 전문가는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듣고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 기관차 전문가는 망치만 들고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폐 전문가는 환자의 목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알아낸다고 한다. 이처럼 전문가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경험치가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운전도 인공지능이 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도 인공지능이 하고 심지어 범죄자에 대한 심의와 판결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운전도 인공지능이 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도 인공지능이 하고 심지어 범죄자에 대한 심의와 판결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운전도 인공지능이 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도 인공지능이 하고 심지어 범죄자에 대한 심의와 판결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운전도 인공지능이 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도 인공지능이 하고 심지어 범죄자에 대한 심의와 판결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운전도 인공지능이 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도 인공지능이 하고 심지어 범죄자에 대한 심의와 판결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운전도 인공지능이 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도 인공지능이 하고 심지어 범죄자에 대한 심의와 판결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운전도 인공지능이 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도 인공지능이 하고 심지어 범죄자에 대한 심의와 판결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운전도 인공지능이 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도 인공지능이 하고 심지어 범죄자에 대한 심의와 판결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 하나님의 역사는 짝을 이루는 역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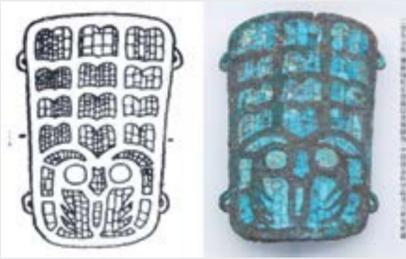
노아의 장자 셈이 낳은 아들 아르박삭, 아르박삭이 낳은 셀라, 셀라가 에벨을 낳았다. 그리고 에벨이 두 아들 벨렉과 욥단을 낳을 시점에 세상이 나누어졌기에 만아들 이름을 나눔이라고 하는 벨렉이라 지었다.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황하,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나일강 등 4개 지역으로 서로 다른 인종과 언어와 문화권으로 분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황하 문명을 이루고 살던 인종 대다수가 황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황인종의 조상 셈이 낳은 아들 가운데 동쪽으로 진출한 열람과 룻의 자손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벨렉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증손자 단의 자손들이 지금으로부터 3200여 년 전에 알타이산맥까지 진출하여 중국과 몽골초원 그리고 한반도로 진출하기 전에, 훨씬 앞서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에벨의 둘째 아들이 되는 욥단의 후손이 중국에 진출하여 토착민 부족들을 규합하여 기원전 1600년경에 상나라(은나라)를 건립한 것으로 비정된다. 성경 창세기 10장 30절에 욥단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고 했는데, 동쪽 산은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 ‘동방 산지’를 뜻한다. 그러므로 높은 산들이 많은 중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엘리타우 문화(二里頭文化, Eritou culture, 기원 전 2100년경 ~ 기원 전 1800년경 또는 기원 전 1500년경)에서 발견된 (동쪽에 연록색 비취가 박힌 장식물(사진 참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생활할 때 대체시장 아론이 착용하는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의 가슴에 부착하는 관결 흉패와 그대로 닮았다. 이것은 중국 고대사에도 하나님께서 간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증거이며, 언젠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를 중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고하신 징표로 보인다.

왕명(王明) 학자가 저술한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의 연구서적에는 서주(西周)의 성립에 중국 북서부의 용족(戎族)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주나라를 세운 주세력기 바로 서융(西戎)인데, 그 서융은 기원전 13세기 중반에 이스라엘 나라 소라 땅에서 알타이산맥까지 이주해온 수십만의 단지파 백성들 가운데서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라타이(阿勒泰) 지구에 잔류한 무리다. 그들은 삼손이 활약하던 사사시대에 사용하던 고대 히브리어가 되는 올드 네게브(Old Negev) 문자의 합자어(合字語)를 만드는 데 뛰어난 역할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역량은 상나라의 갑골 문자를 주나라의 금문으로 한자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는 짝을 이루는 역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하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었고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단지파 비주류에 의해 주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단지파 주류에 의해서 고조선이 건립되었다.\*



※ 사진 설명: 엘리타우 문화권에 속한 중국 산서 하현(山西夏县)의 유적지 고분군에서 발견된 (연록색 비취가 박힌 장식물)은 청동 방울이 주렁주렁 달린 군장(君長) 또는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고인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장식물에는 열두 부족(?)을 상징하는 12개의 사각형태가 3행 4열로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 열두 부족을 보호하는 도깨비형상(제사장 또는 천신·아혜의 얼굴)을 하고 있다.



※ 사진 설명: 대체사장이 의복으로 착용하는 에봇의 흉패에는 12보석이 올려 있는데, 3개씩 4줄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성경 출애굽기 28장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12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특히 단지파에 해당하는 보석은 귀김람석(chrysolite)이었다.

##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